

團의 現地發表의 概要는 다음과 같다. 이것은 十月十四日 開催된 文化財 委第一分委(十三次)에 報告되어 「軍威三尊石窟」의 名稱으로 國寶로서 假指定키로 決定되었다.

(1) 石窟 및 三尊의 年代는 新羅統一直後(六六〇—七〇〇頃)로 推定한다.

(2) 尊名은 阿彌陀佛 座像 觀音·勢至菩薩(立像)

(3) 三尊樣式을 간직하고 있는 石像은 各部樣式과 彫法에서 三國以來의 素朴 莊重한 手法과 作品을 繼承하고 있다.

(4) 石窟이 慶州 石窟庵에 先行하는 始源의 樣式을 보이고 있음은 注目할만하다.

(現在의 窟內 基盤은 築壇되어 있으므로 原形의 調査를 期한다)

(5) 窟下의 寺址에는 新羅模塼石塔 一基가 남아 있는 바 그에 對한 調査는 石窟과 함께 實施한다.(사진 上은 三尊, 下는 으므로서 鄭永鎬氏의 撮影인)

◎ 春川校洞穴居遺址

十月十四日 文化財委 第一分委(十三次)에서는 金元龍 委員의 現地調査報告에

의하여 지난 四일에 春川 鳳儀山麓의 誠心女子綜合大學 建築工事에서 發見된 表題의 洞窟穴居址를 史蹟으로 假指定키로 決定하였다. 이것은 初有의 重要資料로서 洞窟內에서는 土器, 石器, 人骨等 三十五點의 遺物이 收拾되었다(石鏃 八, 管玉 一, 石刀 二, 石斧 五, 石斧 一, 石棒 二, 土器 五, 水精 二)

昇安寺址 三層石塔內 發見遺物

— 第三卷 第十號 通卷二十七號 —
洪 思 俊

慶南 咸陽郡 水東面 牛鳴里所在 國寶 第四九號 石塔을 原位置에서 西方約十五m 地點에 移置하기 爲한 石塔解體時 第一塔身에서 發見된 遺物들은 稀貴한 것은 아니라고 보나 學術研究에 一助가 될 것으로 아래에 紹介하는 바이다.(註)

塔身中央에 圓孔이 있어 그 안에 뚜껑 있는 圓筒이 들어 있었다. 六月十六日字 慶南道에서 慶州博物館으로 移送된 遺物들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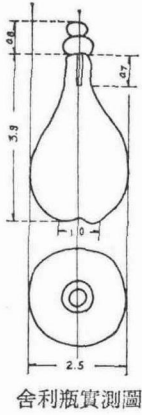
- 1, 綿布靛青色 一 白色綿布片 一 計二點
- 2, 明袖片 朱色紫色黃色淡默色 若干
- 3, 罍(破) 一個(이 안에 各色 조각 襪片 一枚와 四의 A, B가 들어 있다)

4, 韓紙 一枚에 墨書한 銘文(紙質이 솜과 같이 되어 있다)

- (A) 弘治七 朴文山兩「初五日 栗伊」沈氏 金哲全「金」沈「二守」□□
 金仇非「乞石」卜□□小陽非 盧友明「韓甘同」□□施主小南 張有山「□□」李「末乙金 小判」鄭孫妻 成道者「□□」

(B) (A)와 같이 솜같이 된 韓紙一枚에 細字墨書로 無垢淨……이 記錄되어 있다.

5, 黃銅製 蓋付盒(圓徑 九cm 높이 一〇cm) 香片이 粉末로 되어 한주럭 可量 들어 있고 六, 七, 八, 九가 들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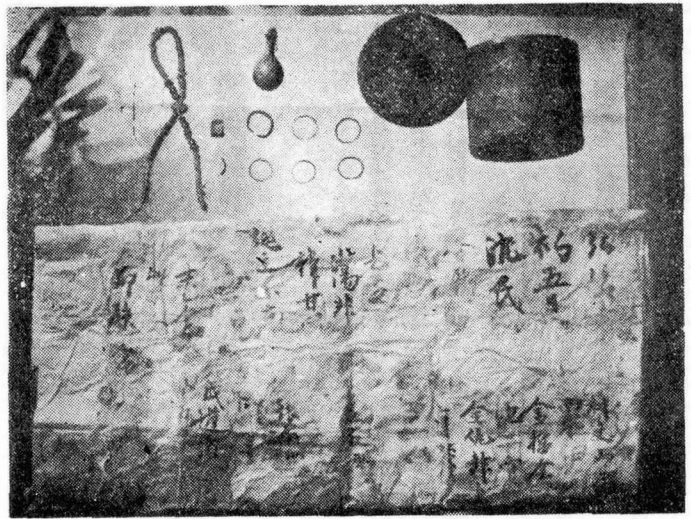


舍利瓶實測圖

단 弘治七은 明 孝宗 七年으로 李朝 成宗 二十五年(一四九四年)에 該當된
다. 當時 石塔을 重修함에 信徒들이 上記 遺物들을 裝置한 것으로 思料
된다. (6) 黃銅製蓋付盒은 形態가 蓋와 盒이 接하는 處을 蓋口緣에 도
드라진 圓帶가 둘러 있으며 盒底邊에도 같은 圓帶가 二條 둘러 있다.

盒表에는 細線으로 上下 二段
에 各一條의 平行된 陰刻이 있
다.

註 이 글은 慶南道廳에서 現
品送付에 添附한 目錄에 依
據한 것이나 工事 擔當者의



6, 翡翠色 유리製
小舍利瓶 一個(蓋付
높이 四·七cm) 附
舍利 一粒(白色)
7, 유리連珠 連
透明色 綠色 黑갈색
等의 連珠가 섞여져
피여졌다. 8 形으로
本是 된 것임

8, 指環 七個 銀
製(腐蝕灰色) 完一
個 白銅製 六個(一個
는 2/3 破失) 四
個는 濃朱色으로 變
하였음

9, 銀片 一點(無
變換)
等이 었다. 遺物
中 韓紙(4 에 나타

兩紐寶花鏡의 一例

李 蘭 暎

앞에 의하면 舍利孔(徑 十二cm 길이 十六cm) 위에 綿絹布片이 있고 舍利筒
은 石底面에 그대로 놓이였으며 그 옆에 열납이 있어 內部에 墨書紙가 들
어 있었었다 한다. 發見日字 一九六二年 一月 二十五日

지난 三月下旬 어느분의 紹介로 兩紐寶花鏡 一點을 얻어 볼 수 있는
機會가 있었다. 이 鏡은 위선 鏡에 兩紐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關
心을 끌었는데 나는 여러 記錄을 찾아본즉 國立博物館所藏品으로서 이와
거의 같은 크기의 것이 한點 疎開品 가운데 끼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不
幸히도 現在는 直接 찾아 볼 수 있는 道理가 없으나 古蹟圖譜에 依하면
여기서 紹介하려는 銅鏡과 비슷한 크기에 또 거의 비슷한 文樣으로 陰
刻되어 있는 것이다. 圖譜에서 보이는 所謂 兩紐八花鏡은 周緣部의 陰
刻文이 甚히 磨滅된 듯 그 뚜렷한 윤곽을 알아 볼 수 없었지만 內部는
八葉의 蓮瓣을 마련하고 그 花瓣 하나하나에 文樣을 새기고 있는데 그
역시 뚜렷한 모양을 알아 보기가 힘들다. 다만 맨 가운데 部分에는 梵
字가 새겨져 있고 그 주변은 두줄로 된 선을 그리고 자기 그 줄에서 外緣
部를 向하여 凸凹文을 새기고 있으며 蓮瓣과 蓮瓣은 두겹의 테두리 사
이에 獨立된 하나씩의 선이 처지고 兩紐는 蓮瓣사이에 位置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筆者가 過眼했던 銅鏡은 위선 周緣部에는 三鉗杆 一〇
個를 새겨서 이른바 我, 佛, 衆生의 教義를 表示하고 있으며 中心部에는
博物館所藏品과 같이 梵字를 역시 陰刻으로 새기고 있으나 梵字의 周
緣은 두줄을 두르고 外緣에만 각 蓮瓣속에 세개씩의 仰蓮을 새각기 새
기고 있다. 바탕에는 一〇個의 花瓣으로 構成하고 각 蓮瓣속에는 연꽃
봉오리 같은 角類, 蓮葉 등등의 무늬를 넣고 두개의 蓮瓣 각기 하나씩
紐의 部分을 位置시키고 있다. 또한 蓮瓣의 테두리는 좀더 락게 두줄을